▪ 교회소식 ▪

성서주일 :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따라야 할 말씀이 있음을 감사합시다.
당회 : 오늘 오후 1:30 친교실에서 당회가 열립니다.
교육부 회의 : 오늘 오후 12:30 세미나실에서 교육부회가 있습니다.
연합속회 : 이번 주 금요일(16일) 오전 11시 교육관에서 연합속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빵 : 일전에 교회에서 받아 가신 사랑의 빵 저금통을 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입교교육 : 이번 성탄절에 입교를 희망하시는 분(유아세례를 받고 만18세 이상이 된 이)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교육(17일 오후2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실천 : 성서주일을 맞아 성경구절을 암송해 봅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출10:21-23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신진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신진식 목사	안길상 권사	강신철 집사

12월	1부 영접위원	박숙미
	1부 헌금위원	이부용
	2부 영접위원	김정민 송형운 추헌영 하미림 박진숙 이혜령
	2부 헌금위원	하현철 진정숙

오늘 식당 봉사 : 권미숙 조경자 최옥자 최미자 유금주 서안나 국지연 이경준
다음 주 식당봉사 :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정숙 장미경 박경원 송인선 송동준
오늘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2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4여선교회
떡 대 접 : 임선양 신현숙

2016-50 12월 11일

108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대림절 3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9. 성도여 다 함께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빛을, 고통 속에 생명을, 절망 속에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늘 우리 곁에 있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주님,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 속에 살아가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자유, 당당함,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 국민들이 난국을 헤쳐 나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불빛들이 모여 만든 빛의 강줄기가 이 나라 곳곳에 깊게 배어든 어둠을 씻어내게 해주십시오. 거짓으로 뒤덮여 있는 진실을 드러내게 하시고, 위로받지 못한 아픈 마음들을 치유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마5:3,4 …… 인도자

▲ 교 독 문 …… 117. 구주 강림(3)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김정민 장로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304.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다 함께

▲ 성경봉독 …… 마 1:18-25 …… I. 인도자 II. 남인자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2부찬 양 …… 주의 은혜 내 잔에 가득 넘쳐 …… 찬양대

주의 은혜 내 잔에 가득 넘쳐 기쁨 평화 강같이 흐를 때
소리 높여 주 이름 찬송하며 복된 이 길 주 함께 걸으리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요한 원은이 강인식 김정숙 공종철 구자경 곽정자 구명자 국지연 김광일
이부용 김금순 김기석 김희우 김나름 김명희 김병대 김영순 김용태 박정숙
김재흥 최희영 김정길 최숙화 김정훈 이진영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지윤 정영우 김혜영 김훈동 유경순 남명진 김애정 마재국 손의나 문금석
문복순 박기영 박다니엘 박상규 신연화 박숙미 박시내 박예림 박옥순 백묘현
서수진 서정순 송정근 이소선 안정숙 안현숙 오미숙 왕수명 원용일 최현선
윤순우 윤영미 이광석 이경희 이동천 이순용 김신실 이예서 이완구 이용석
이우원 옥귀희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진영 한양미 임형욱 장영숙 정두리
정연경 정종삼 조순덕 주은경 최옥분 최옥자 최원남 김희천 최윤선 한상익
정영선 한선희 홍복선 홍춘숙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김명희 김영희 김용진 박효선 김재흥 최희영 김준호 곽혜자 노승현 이재희
노성찬 문복순 박재영 이현정 박준희 이기분 박창운 허정윤 방경선 백성래
신진식 변혜정 양경혜 오송경 오승아 윤형석 김나경 이광재 이범석 류정욱
이성찬 이시경 이유일 김미희 이은혜 이지훈 임선양 신현숙 정연경 정학성
김현숙 최형서 허진영 홍성덕 마혜진 황경순 무명11

녹색꿈헌금
임창선 정효자 조항범 무명4

생일감사헌금
김창숙 이순이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당 회	낮 집 회 / 설교 : 김재흥 목사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다친 가슴으로

가을 산길을 걷다가
다친 새 한 마리 살려 보낸다고
손을 다쳤다

산은 다친 사람들을 품고
말없이 치유해 보내느라
숲을 많이 다쳤다

나는 누구 하나 제대로
품어 살리지도 못하고
가슴만 크게 다쳤다

가을 서리는 내리는데
나는 몸이 시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 하나 보내지도 못하고
깊이 다친 가슴을 문지르며
고개 숙여 가을 길을 걷는다

– 박노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 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소리 높여 주 이름 찬송하며 복된 이 길 주 함께 걸으리
주의 은혜 내 잔에 가득 넘쳐 사랑의 샘 내 영을 적실 때
감사 노래 주 앞에 부르면서 복된 이 길 주 함께 걸으리
감사 노래 주 앞에 부르면서 복된 이 길 주 함께 걸으리
주의 은혜 내 잔에 가득 넘쳐 주의 성령 내 영을 감쌀 때
진리 말씀 만방에 전파하며 내 모든 삶 주 위해 바치리
진리 말씀 만방에 전파하며 내 모든 삶 주 위해 바치리
아멘

말 씀 …… **의로운 사람, 요셉** …… 김기석 목사
거룩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449. 예수 따라가며 ……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마땅한 길을 가십시오. 가야할 길이 고되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는 믿음으로 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욕심과 걱정에 이끌려 바른 길이 있음에도 그 길을 가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의의 길만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씨올이여 생각을 깊이 하라

… 지성의 패배는 결국 덕이 무너진 것을 말한다. 지(知)가 진 것은 능(能)에 대해서인데 지·능이 충돌되는 것은 인격 곧 덕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다. 지와 능이 일치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인데, 그것이 서로 싸우면 인격의 파멸이 온다. 인격이 통일을 잃었으므로 지·능의 충돌이 온다. 그러므로 이 비극을 회복하는 것은 덕성의 회복에 달렸다. … 이 의미에서 이것은 민족의 일대 위기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만일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나 민족은 망하고 말 것이다. …

사람마다 말마다 인물 빈곤을 말한다. 지도자 없음을 한탄한다. 우리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디서 올까? 이러한 혼란기에 우선 필요한 것은 물론 유능한 인물이다. 의욕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물건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知)·정(情)·의(意)의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요, 더구나 현대는 스스로 자기를 아는, 알려는 주체성을 가진 씨올의 시대다. 그러므로 힘의 숭배만으로는 아니 될 것이 뻔하다. 옛날같이 단순한 사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 능(能)은 개인의 능이 아니라 대중의 능, 전체의 능이다. 천재가 독재를 하는 시대는 영원히 지나가고 말았다. 역사를 잘못 읽어서는 아니 된다.

중인(衆人)의 능, 전체의 능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식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로서 능보다 더 필요한 자격은 지성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먼저 필요한 것은 덕이다. 덕은 무엇이냐? 자기 속에서 전체를 체험하는 일이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나타낸 것이 헌법이다. 옛날 임금의 덕이 발달하면 헌법이 되었다. 아무리 어질어도 자기의 의사를 고집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의지와 지혜로 표시된 헌법에 겸손히 복종할 만한 덕이 있지 않고는 이 난국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 자신이 있어야 하지만, 잘못된 자신이 사람을 망친다. 이 의미에서 종교와 교육과 언론과 집회와 예술의 절대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은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어려워진 나라에서는 결국 악순환인데, 가지가지 잘못이 서로 얽혀서 무엇부터 풀어야 할지를 알 수 없는데, 지혜와 용단은 그 어느 고리에서 자르느냐 하는 데 있다. 한 고리가 풀리면 전체가 풀릴 줄 아나, 그 어느 고리에서 자르느냐가 문제다. 모험이라면 다 모험이다. 그러나 마땅히 모험해야 하는 올바른 점은 지(知)에 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하여 한번 모험을 할 전략적인 지점이 셋이 있다 할 수 있다. 부(富)가 그 하나요, 권(權)이 또하나요, 그 다음은 지(知)다. 그러나 이 셋 중에 반드시 골라야 하는 것은 지라는 말이다.

모험이라면 다 모험이다. 잘못하다가는 나라를 송두리째 망친다. 부나 권으로서 하는 모험은 꼭 될 듯한데 반드시 패망에 이르고야 만다. 역사가 행진해온 큰길 좌우 옆 도랑에 수두룩한 백골이 다 부권(富權)을 가지고 자신만만하다면서 건곤일척의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것들이다. 안 될 듯하면서, 열어놓으면 홍수처럼 전국을 혼란에 담가버릴 듯하면서 사실 나라를 건지는 것은 지(知)의 문이다.

호모 사피엔스 아닌가. 앞으로의 역사는 점점 더 지성의 역사가 될 것이다. 칼을 꺾고 생각을 깊이 하자.

–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한길사) 중에서